

## 한·중 ‘두려움’에 대한 개념화 양상 대조 연구 II

— ‘입’과 ‘입술’을 중심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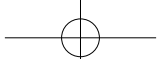
요령운\* · 김성주\*\*

- 차례 -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한국어 ‘두려움’의 개념화 양상
4. 중국어 ‘두려움[懼]’의 개념화 양상
5. 한·중 ‘두려움’의 개념화 양상의 공통점과 차이점
6. 결론

\* 제1저자,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yaolinyun1990@hot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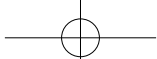
\*\* 단독교신저자, 동국대학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 sutra01@daum.net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인체 부위인 ‘입’과 이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 ‘입술’을 대상으로 ‘두려움’에 대한 한국어와 중국어의 표현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려고 한다. 인지언어학의 ‘생리적 환유’의 차원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인 ‘두려움’이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어떻게 개념화되는지 살펴보고, 그 보편성과 특수성을 탐구할 것이다. 이 글은 ‘생리적 환유’, ‘은유와 환유의 상호작용’을 기제로 한·중 개념적 양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대조한다. 이 글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모두 ‘생리적 환유’를 기제로 ‘입을 벌림’, ‘입을 다뿌’, ‘입술이 떨림’, ‘입안이 마름’, ‘입술의 색채 변화’, ‘입술을 깨물’ 등 생리적 반응이나 증상을 통해 ‘두려움’을 표현한다. 이때 한국어는 입술의 ‘푸른색’과 ‘검은색’으로, 중국어는 입술의 ‘푸른색’과 ‘흰색’으로 ‘두려움’을 표현한다. 그리고 중국어에서 ‘입을 일그러뜨림’은 ‘두려움’을 표현하는 독특한 방식이다. 둘째, ‘은유와 환유의 상호작용’을 기제로 할 때 한국어는 주로 ‘딱딱해지는 실체’, ‘단힌 용기(容器)’로 ‘두려움’을 개념화한다. 중국어는 주로 ‘꽂 맞물린 펜치’를 통해 ‘두려움’을 개념화한다.

**주제어:** 인지언어학, 생리적 환유, 감정, 개념화, 은환유, 이상적 인지 모형, 은유와 환유의 상호작용



## 1. 서론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감정 중의 하나이다. ‘두려움’에 담긴 감정은 매우 복잡한데, 즉, 일상의 걱정과 불안감에서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 느끼는 강한 공포감까지를 포함한다. 인간은 두려울 때 ‘식은땀이 흐르다’, ‘심장이 두근거리다’ 등과 같은 생리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그러나 문화권의 영향으로<sup>1</sup> 감정을 개념화할 때 선호하는 특정 신체 부위의 증상이나 반응이 존재하기도 한다.<sup>2</sup> 그러므로 서로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같은 감정을 어떻게 개념화했는지 탐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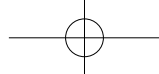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최근 인지언어학계에서는 ‘두려움’을 비롯한 다양한 감정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은유를 메커니즘으로 각 문화권 감정의 개념화 양상을 대조하는 연구가 활발하다(이선희 2010, 강병창 2012). 개념적 은유뿐 아니라 개념적 환유는 문화 간 변이 생산에도 관여할 수 있다. Kövecses(2000: 267)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환유의 범위<sup>3</sup>와 환유의 특별한 정교화<sup>4</sup>가 문화 간 변이

1 아칸어(Akan, 니제르콩고 어족에 속하는 아프리카의 가나 남부에서 쓰이는 언어)와 영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에서 두려움을 표현할 때 동일한 개념의 환유나 은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얼굴의 창백함으로 두려움을 대신함]이라는 환유와 여기서 파생된 개념적 은유는 ‘아칸어’와 영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흑인의 생리적 조건 중 질은 피부색이 그러한 표현의 부재와 관련이 있으며, 문화적 특수성이 감정을 개념화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예라고 볼 수도 있다.

2 인지언어학에서는 의미와 개념화를 구별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현의 의미란, 개념주체(conceptualizer)인 ‘언어사용자’(language user)가 어떤 대상이나 사태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의 문제, 즉 개념화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어에서 ‘생리적 환유’라는 기제로 ‘심장이 두근거리다’ 등의 현상을 통해 ‘두려움’의 감정을 개념화한다(임지룡 외 역 2004: 6).

3 Kövecses(2000)에 따르면 영어에서 ‘화’와 관련된 습관적으로 언어화된 주요한 개념적 환유는 내부 압력, 체온 상승, 흔들림 등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줄루어(Zulu)는 ‘화’에 대한 습관적 표현에서 말 못함, 울음(눈물), 발한(發汗), 병, 호흡 장애 등을 사용한다. 말 못함, 울음(눈물), 발한(發汗), 병, 호흡 장애 등의 생리적 증상은 영어에서도 발견되지만 ‘화’를 연상시키지는 않는다.

4 Kövecses(2000)에서는 언어에서 지각되고 인식되는 생리적 반응 및 증상이 다양하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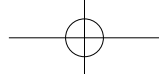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의 잠재적 근원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많은 학자들이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감정적 개념화 양상을 연구하는데, 학자에 따라 여러 입장이 존재한다. 임지룡(2000, 2001가, 2001나, 2001다, 2001라, 2005가, 2005나), 李敬(2011), 오상석(2014), 임지룡(2015) 등은 인간의 감정을 단순한 신체 경험에서 비롯된 ‘생리적 환유’로 보았다. 즉 ‘감정’과 ‘감정에 의한 생리적 반응’은 동일한 이상적 인지모형에 속한다. 그러므로 개념적 환유 [생리적 반응은 감정을 대신함을 통해 ‘두려움’과 같은 감정을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陳家旭(2008), 鍾曲莉(2008), 董偉娟·毛靜林(2008), 李秀芝(2008), 이정희(2011, 2012), 張林影(2012) 등은 신체 부위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다른 영역을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은유적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즉, 추상적인 ‘감정’에 구체적인 ‘신체적 반응’을 사상함으로써 [감정은 신체적 반응]이라는 은유적 개념을 얻게 되고, 이 은유적 개념을 통하여 ‘감정’과 ‘신체적 반응’ 사이에 유사성이 창조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두려움’ 등의 감정을 해석한다.

임지룡(2000, 2001가, 2001나, 2001다, 2001라, 2005가, 2005나), 陳家旭(2008), 鍾曲莉(2008), 董偉娟·毛靜林(2008), 李秀芝(2008), 李敬(2011), 오상석(2014), 임지룡(2015), 이정희(2011, 2012), 張林影(2012) 등은 은유와 환유를 구분해야 한다고 하였고 趙學德(2013)은 은유와 환유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趙學德(2013)은 감정이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은유를 기제로 작용하는지, 어느 부분이 환유를 기제로 작용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는 은유와 환유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은유와 환유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받아들이고자 한다. 감정을 인체적인 감지(人體的感知)를 바탕으로 하는 은유의 산물로 볼 수도 있지만, 환유 역시 신체의 생리적 반응과 감정 간의 연결 작용을 하므로 생리적 환유의 존재를 무시할

---

주장하였다. 심지어 같은 개념적 환유도 문화에 따라 그 정교화 방식이나 환유에 부여되는 중요성이 다르다고 보았다. 많은 문화권에서 눈은 흔히 “마음의 창”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감정을 개념화할 때는 문화권이나 언어에 따라 눈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영어는 주로 행복에 대한 환유적 표지로 눈을 사용하며, “빛(light)”의 강도를 활용한다. 그러나 중국어는 행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로 눈썹을 정교화한다.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감정 표현의 ‘합성성<sup>5</sup>의 정도’에 근거하여 ‘생리적 환유’를 메커니즘으로 하는지, 아니면 ‘은유와 환유의 상호작용’을 메커니즘으로 하는지 판단한 후 한국어와 중국어의 ‘두려움’에 대한 개념화 양상을 검토할 것이다. 판단 기준은 요령운(2021: 164)과 같다. 첫째, 구성요소 각자의 의미만으로 ‘두려움’의 의미를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감정 표현은 주로 ‘환유’를 통해 표현된다. 둘째, 2차 연상을 통해 비로소 완전한 의미의 감정 표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Goossens(1990)의 은환유를 통해 해석한다.<sup>6</sup>

‘입’은 가장 많은 기능을 가진 신체 기관으로, 인간은 ‘입’의 다양한 동태를 통해 내면의 감정 상태를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신체 부위인 ‘입’과 이와 가장 관련성이 있는 ‘입술’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인지언어학의 ‘생리적 환유’ 및 ‘은유와 환유의 상호작용’을 메커니즘으로 ‘두려움’을 개념화하는 양상의 보편성과 차별성을 탐구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두려움’에 대한 표현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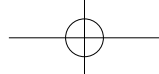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최근 언어 사용 연구를 위해 시작된 코퍼스 언어학은 방대한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언어 사용 모습을 보여주는 새로운 연구 방법이다. 본 연구는 ‘생리적 현상이나 반응’과 관련된 ‘두려움’에 관한 예문을 추출하기 위해 코퍼스를 사용하였는데, 한국어는 구체적으로 ‘두려움’, ‘무서움’, ‘공포’, ‘겁’, ‘불안감’, ‘놀라움<sup>8</sup>’ 등을 검색어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5 심지연(2009가: 99)에서는 관용 표현에서 나타나는 관용적 의미의 합성성은 각각 은유, 환유, 은유와 환유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합성성의 기준을 입과 관련된 감정 표현을 분석하는 데 사용한다.

6 익명의 심사자는 본 논문의 1장에서 다룬 선행연구를 2장에 넣기를 권하였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2장에서는 ‘생리적 환유’와 ‘은유와 환유의 상호작용’의 개념을 설명해야 하는데, 이 개념들은 선행연구와 관련이 없다. 2장에서 선행연구와 개념을 함께 다루면 논리적으로 매끄럽지 않기 때문이다.

7 이훈구 외(2005: 243)에서 ‘공포’와 ‘불안’은 모두 위협의 자극을 받아 생긴 감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불안과 공포라는 감정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현실적으로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공포와 불안은 비슷한 생리적 변화, 주관적 경험, 행동 성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불안과 공포는 본질적으로 같은 감정이라고 본다.

8 Ekman & Friesen(2003)에 따르면 두려움은 놀라움의 감정을 수반한다. 두려운 사건



연구원의 [물결21] 코퍼스<sup>9</sup>와 국립국어원의 [언어정보나눔터 말뭉치]<sup>10</sup>에 제시된 예문을 살펴보았다. 중국어는 구체적으로 ‘怕’, ‘恐懼’, ‘嚇得’, ‘不敢’, ‘不安’ 등을 검색어로 삼았으며, 北京大學中國語言學研究中心의 [CCL漢語語料庫]<sup>11</sup>와 北京語言大學語料庫中心的 [BCC漢語語料庫]<sup>12</sup>에서 관련 예문을 검색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생리적 환유

감정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감수적인 차원’으로만 접근한다면 이해에 있어서 직관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전통적인 언어학적 관점 및 수사학적 관점에서 벗어난 인지언어학의 개념이 필요하다. Lakoff & Johnson(1980/2003)은 인간의 개념 체계는 본질상 은유이며, 일상 언어의 은유는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매우 자연스러우며 정상적이라고 하였다. 환유도 인간과 세계의 물리적 상호작용에 기초하며, 이것은 은유의 토대화보다 더 자명하다고 보았다. 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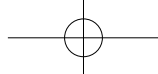
은 대부분 예상 밖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때 얼굴 표정의 일부는 놀라움을 표현하고 일부는 두려움을 동반하는데, 다만 ‘두려움’이 더 두드러진다. ‘두려움’과 ‘놀라움’은 구분해야 할 점이 있지만 상황이나 문맥에 의하면 놀라움은 어느 정도 ‘무섭다’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임지룡(2006: 91)에서는 ‘놀라움’의 감정을 ‘두려움’과 동일시하기도 했는데, ‘놀라다’가 ‘두려움’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범열(2021: 32)에서도 ‘놀라움’이 ‘두려움’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문을 제시하였다.

9 <http://corpus.korea.ac.kr/>

10 국립국어원의 [언어정보나눔터 말뭉치](<https://ithub.korean.go.kr/user/main.do>)는 논문 투고 시 이미 운영 중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예문은 이 사이트가 중단되기 전인 2021년 6월에 수집하였다.

11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http://ccl.pku.edu.cn:8080/ccl_corp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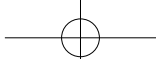
12 <http://bcc.blcu.edu.cn/>



지언어학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환유의 정의는 Radden & Kövecses(1999: 21)에서 제시한 것으로, “환유는 동일한 이상적 인지모형(Idealized Cognitive Model; ICM) 내에서 매체라는 한 개념적 실체가 목표하는 다른 개념적 실체에 정신적 접촉을 제공하는 인지 과정이다.” 환유의 매체와 목표는 개념적 인접성(conceptual contiguity)에 의해 연결되며,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환유는 개념적 환유(conceptual metonymy)라고 부른다. 하나의 ICM 내에 속하는 ‘목표’와 ‘매체’는 특정한 개념적 관계로, 크게 전체 ICM과 그 부분 간의 관계, 또는 하나의 ICM의 부분들 간의 관계로 나뉜다. 전자는 ‘전체-부분 환유’라고 하며, 후자는 ‘부분-부분 환유’라고 한다. 그리고 ‘전체-부분’ 모형의 환유적 개념은 다시 [전체를 부분으로 대신함]과 [부분을 전체로 대신함]의 두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부분-부분’ 모형의 환유적 개념은 [부분을 부분으로 대신함]이 있다. 또 다른 경우로, 인간이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생리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른바 ‘민간 모형’에 의하여 ‘감정 유발 자극→감정→생리적 반응’의 시나리오 체계를 갖는다(임지룡 1999: 111).<sup>13</sup> 이러한 신체적 반응은 언어 표현에 의해 포착되는데,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그 감정과 관련된 반응 간에는 인과 관계가 이루어진다. 즉, “감정의 생리적 반응이나 신체적 증상은 감정을 대표한다”는 것이다. Ungerer & Schmid(1996)은 이 관계를 ‘감정의 생리적 환유(physiological metonymies for emotions)’라고 하였다. 본고에서 언급한 ‘감정’과 ‘생리 증상이나 반응’ 사이의 인과 관계, 즉 인과성 인지모형은 ‘부분-부분 환유’의 인지모형에 속한다. 이는 Kövecses(2002)에서 제시한 이상적인 인지모형인 ‘부분과 다른 부분 사이’의 관계의 그림을 통하여 해석할 수 있다.<sup>14</sup>

13 임지룡(1999)에서 ‘민간 모형’은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직관과 체험을 기초로 형성된 상식적인 모형을 말한다. 즉,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일상에서 공유해 온 믿음을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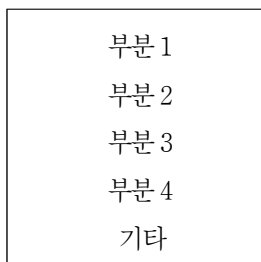
14 Lakoff(1987)에서 이상적 인지모형(ICM)이란 특정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화자가 어떤 영역에서의 경험과 지식에 대하여 추상적이고 통일적이며 이상화된 이해를 가지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종의 게슈탈트(gestalt) 성질을 가진 복잡한 인지 모형이라고



따라서 본 연구는 Kövecses(2002)에서 제시한 ‘부분과 다른 부분’ 사이의 이상적인 인지 모형을 통해 ‘감정’과 ‘생리 증상이나 반응’ 사이에 형성된 인과 관계를 해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기제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두려움’의 개념화 양상을 대조할 것이다.

이상적 인지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전체 이상적 인지 모형)



<그림 1> 이상적 인지 모형 부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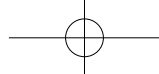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따라서 본고는 감정 표현의 구성요소 각자의 의미만으로 ‘두려움’의 의미를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감정 표현은 주로 ‘환유’를 통해 표현된다고 본다.

## 2.2. 은유와 환유의 상호작용

Goossens(1990: 336)에서 인지 과정 중 각 영역 간 경계는 항상 일정하지 않고 때로는 모호하기 때문에 환유와 은유가 서로 혼합, 침투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은환유(metaphonymy)는 크게 4가지 하위 유형이 있는데, 환유로부터의 은유(metaphor from metonymy), 은유 속 환유(metonymy within metaphor), 환유 속 은유(metaphor within metonymy), 그리고 은유적 문맥에

---

하였다. 인지모형은 실세계로부터의 추상이므로 ‘이상적’이라 부르고, 실재(實在)의 모든 복잡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복잡성을 유연하게 다루기 위한 인지적 패턴을 제공한다.



서 발생하는 탈환유화(demetonymization in a metaphorical context) 등이 있다고 하였다. 감정에 관한 은환유는 주로 ‘환유로부터의 은유’에 속한다. 따라서 본고는 이 유형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환유로부터의 은유’는 환유가 기초가 되어 먼저 일어나고 다음으로 은유가 발생하는 순차적 작용을 말한다. 즉,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사이가 점점 멀어져 환유가 은유로 변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발목을 잡다’를 예로 살펴보자.

(1) 사장은 전과 사실을 빌미로 그의 **발목을 잡고** 헐박을 했다.

『표준국어대사전』

‘발목을 잡다’는 먼저 ‘움직임 ICM’을 구성하는 부분인 ‘발목’이 환유를 통해 ‘어떤 것에 잡혀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약점은 발목이다라는 개념 은유를 통해 ‘약점을 잡다’라는 두 번째 의미로 나타난다. 이 개념화 과정은 환유에서 출발하여 은유적 의미로 파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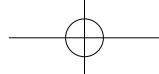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본고는 이와 같이 2차 연상을 통해 비로소 완전한 의미의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은 ‘은환유’가 바탕이 된다고 본다.

### 3. 한국어 ‘두려움’의 개념적 양상

이 장에서는 한국어의 ‘두려움’의 개념적 양상을 다룰 것이다.

#### 3.1. 한국어 ‘두려움’의 환유적 양상<sup>15</sup>

15 최지훈(2007)에서는 관용구를 크게 생리적 반응과 동작에 의한 것으로 나누었다. 본고는 입, 입술과 관련된 감정 표현을 연구 대상을 삼는다. 조건반사와 같은 생리적 반응인지 주체의 능동적이거나 의식적인 행동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지만 이들은 개념이나



환유화 양상은 주로 타인이 관찰 가능한 조건반사와 같은 외부 상태로 내면의 심리 활동을 나타내기도 하고 주체의 의도적인 동작에 의해 심리 상태가 표현되기도 한다.<sup>16</sup> 전자는 [결과로 원인을 대신함]의 하위구조인 [외부의 생리적 반응으로 심리 상태를 대신함]에 속하며, 후자는 [결과로 원인을 대신함]의 하위구조인 [동작으로 심리 상태를 대신함]에 속한다.

### 3.1.1. [외부의 생리 반응으로 심리 상태를 대신함]

눈을 통해 관찰되는 외부의 생리적 반응이나 증상은 그 심리 상태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두려울 때 ‘두려움’이라는 심리 상태를 어떻게 ‘입’과 ‘입술’을 통해 본능적으로 표현하는지 밝힐 것이다.

#### 3.1.1.1. [입을 여는 것으로 두려움을 대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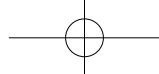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인간은 두려움을 느낄 때 대뇌피질로부터 뉴로피드백(neurofeedback)을 받고, 그 후 신체에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 입의 근육이 명령을 받으면 신경 반사가 일어나 입을 자기도 모르게 벌리게 된다. 한국어에서는 인간이 입을 여는 것으로 ‘두려움’을 표현한다. 예를 들면 다음 (2)와 같다.

(2) 가. 겁에 질려 입을 벌리고 있는 흥대감에게 일갈을 했다.

『한국인의 조건(상)』

표현 방식을 통하여 구별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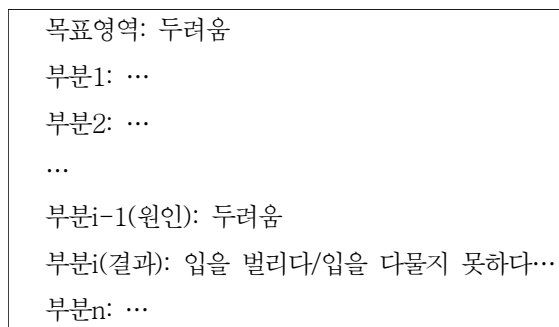
16 오상석(2014: 153)에서는 ‘두려움’의 개념적 환유를 비자발적 신체 반응, 자발적 신체 반응으로 나누었다. 비자발적인 반응은 두려움을 유발하는 사건이 이미 펼쳐진 후의 반응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능동적인 행위는 위협의 순간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장에서의 신체를 동원한 의지의 반응이라고 하였고 이때의 두려움은 거의 공포에 가깝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 신체적 혹은 생리적 반응의 강도에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나. 뉴스가 나가고 나자 사람들은 너무나 끔찍한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우리말 관용어 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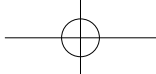
(2)와 같이, 인간은 두려워할 때 본능적으로 입을 벌린다. 그러므로 한국어에서도 생리적 반응을 통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개념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에서 인간은 어떤 자극을 받아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꼈고, 그 감정은 ‘입을 벌림’이라는 생리적 반응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2가)의 ‘입을 벌리다’, (2나)의 ‘입을 다물지 못하다’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생리적 환유를 통하여 ‘두려움’을 나타낸다.

‘감정’과 ‘생리 증상이나 반응’ 사이에 형성된 인과 관계를 Kövecses(2002)가 제시한 ‘부분과 다른 부분’ 사이의 이상적인 인지 모형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입을 여는 것으로 두려움을 지칭함 ICM

‘두려움’이라는 추상적인 감정은 원인이며, ‘입을 벌리다’ 등은 ‘두려움’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또는 반응의 결과이다. 따라서 [원인을 결과로 대신함]의 하위구조 [입을 여는 것으로 두려움을 대신함]의 생리적 환유적 관계를 통하여 ‘두려움’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개념화한다고 볼 수 있다.



## 3.1.1.2. [입을 다문 것으로 두려움을 대신함]

인간은 두려움을 느낄 때 잠재의식 중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입을 다무는데, 이것은 생물의 본능이다. 한국어는 ‘입을 다물다’라는 생리적 증상을 통하여 ‘두려움’의 심리 상태를 표현한다. 예를 들면 다음 (3)과 같다.

(3) 가. 새파랗게 겁에 질린 철수는 갑자기 **입도 떼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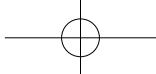
『여성 이야기 주머니-콩트로 읽는 여성학 강의』

나. 그러나 광둥이 자기를 보겠다고 오라는 말을 들으니 부끄럼이 확 끼치며 알 수 없는 겁이 더럭 났다. 그리고 말을 할 수 없이 **입이 다물어 지며** 손발이 후들후들 떨린다. 『소금』

(3)에서 주어는 어떤 자극을 받아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며, 그 감정은 입을 벌리고 싶어도 벌리지 못하는 ‘입을 떼지 못함’이라는 생리적 반응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3가)의 ‘입을 떼지 못함’, (3나)의 ‘입이 다물어짐’ 등은 생리적 환유를 통하여 ‘두려움’이라는 추상적인 감정을 개념화한 것이다. 즉, [입을 다문 것으로 두려움을 대신함]의 생리적 환유를 통해 구체적인 개념화가 이루어진다. [입을 다문 것으로 두려움을 대신함]은 [원인을 결과로 대신함]의 하위 구조에 속한다.

## 3.1.1.3. [입이나 입술을 떠는 것으로 두려움을 대신함]

인간이 두려워할 때, 인체의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근육이 수축하여 혈액이 다시 분포하게 되면, 국소적인 혈액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이때 떨림을 통해 글리코겐 분해를 촉진하며 에너지를 공급(供給)하고 혈액 수급(需給)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두려울 때 신체 부위를 떨게 된다.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입이나 입술의 떨림’을 통하여 ‘두려움’이라는 추상적인 감정을 구체



적으로 환유화한다. 예를 들면 다음 (4)와 같다.

(4) 가. 여고생의 눈동자가 극도의 공포감으로 심하게 흔들렸다. 외마디 비  
명도 지를 수 없는 듯 여고생은 입을 벌린 채 파르르 떨고 있었다.

『아름다운 그 시작』

나. 정작 그날이 다가왔을 때 그녀는 가슴이 아픈 것이 아니라 무서워졌  
다. 팔에 소름이 오싹 돋고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다. 『오디션』

한국어에서 ‘두려움’을 개념화할 때 입술이 떨리는 증상을 통하여 ‘두려움’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기도 한다. (4가)의 ‘입을 벌린 채 파르르 떨다’, (4나)의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다’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생리적 증상이나 반응을 통하여 공포의 심리 상태를 표현한다. [입이나 입술을 떠는 것으로 두려움을 대신함] 역시 [결과가 원인을 대신함]에서 파생된 다양한 하위구조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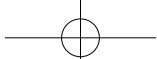
### 3.1.1.4. [입안이 마르는 것으로 두려움을 대신함]

인간이 두려울 때 뇌는 체액 분비를 감소시켜 침 분비가 줄게 되는데, 이때 입이 마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한국어는 ‘입안이 마름’이라는 생리적 증상을 통해 ‘두려움’이라는 추상적 감정을 구체적으로 개념화한다. 예를 들면 다음 (5)와 같다.

(5) 가. 나는 미영이 두려워서라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다. 입안이 바싹바  
싹 마른다. 『경찰서여, 안녕』

나. 견디기 힘든 절망과 공포에 입안이 바싹 말랐다. 『영원한 제국』

한국어에서 ‘두려움’을 개념화할 때는 입의 증상을 통하여 두려움의 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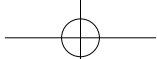
상태를 표현하기도 한다. (5가)에서 ‘미영이가 고향에 못 갈까 봐 걱정하는 것’은 자극 상황으로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유발하며, 그 감정은 ‘입안이 바싹 바싹 마름’이라는 본능적인 생리 반응을 낳는다. (5나)도 (5가)와 같다. ‘절망과 공포를 못 견딜까 봐 걱정하는 것’은 자극 상황으로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유발하며, 그 감정은 ‘입안이 바싹 마름’이라는 본능적인 생리 반응을 낳는다. 따라서 (5가)의 ‘입안이 바싹바싹 마르다’, (5나)의 ‘입안이 바싹 마르다’ 등은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생리적 증상이나 반응을 통하여 ‘두려움’이라는 추상적인 심리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결과가 원인을 대신함]에서 파생된 하위개념 구조인 [입안이 마르는 것으로 두려움을 대신함]을 확인할 수 있다.

### 3.1.1.5. [입술에 나타나는 색채 반응으로 두려움을 대신함]

신체와 관련된 색채 반응도 생리 반응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는 몸의 색채 반응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sup>17</sup> 한국어에서 입술의 색채 반응을 통해 두려움을 표현하는 예는 다음 (6)과 같다.

- (6) 가. 두려움에 질려 입이 떨어지지를 앓았다. 새파랗게 질린 입술을 파르르 떨기만 했다. 『어느 화가의 승천』
- 나. 도두리 터에서 내리라고 했다. 모두 낮빛이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까맣게 뒹다. 비로소, 죽으러 왔구나! 『후일담』
- 다. 바로 보고 앉지도 못하는 신분이라 모로 꺾어 앉은 매안 이씨 선산의 산지기 박달이는 간이 오그라붙는지 입술까지 거뭇게 말려들어가면서 말을 얼른 못 잇는다. 『혼불』

17 임지룡(2006)에서 제시한 (노하거나 흥분할 때) “얼굴이 붉어지다.”, (두려울 때)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등을 통해 몸의 색채 반응이 감정과 밀접하게 부호화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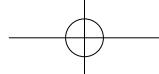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6)에서 ‘입술’에 나타나는 두려움과 관련된 색채 반응은 ‘파란색’과 ‘까만 색’이다. (6가)의 ‘입술이 새파랗게 질리다’, (6나)의 ‘입술이 까맣게 타다’, (6다)의 ‘입술이 거뭇게 말려들어가다’ 등을 통해 ‘두려움’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공포를 느낄 때 ‘입술’의 색채가 푸르거나 검게 바뀔을 의미한다.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혈액 순환이 잘 안 되어 얼굴에 공급되는 혈액의 산소 함유량이 낮아지는데, 이때 입술이 파랗게 되고 심지어 검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입술에 나타나는 색채 반응으로 두려움을 대신함]이라는 생리적 증상을 통하여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개념화한다. ‘생리적 증상을 통해 표현되는 감정’과 ‘생리적 증상’이 서로 인과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입술에 나타나는 색채 반응으로 두려움을 대신함]은 역시 [결과로 원인을 대신함]의 하위개념 구조에 속한다.

### 3.1.2. [심리 상태를 동작으로 대신함]

앞 절에서 살펴본 [외부의 생리 반응으로 심리 상태를 대신함]에서 나타나는 환유적 표현은 모두 조건반사와 같은 생리적 반응으로 ‘두려움’이라는 심리 상태를 표현한다. 이 절은 주체의 능동적이거나 의식적인 행동을 통하여 두려움을 표현하는 예들을 살펴보겠다. 조건반사와 같은 생리적 반응인지 주체의 능동적이거나 의식적인 행동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존재하는데 개념상으로는 구별이 가능하다. 이 절에서 살펴볼 [동작으로 심리 상태를 대신함]이라는 생리적 환유는 ‘인과 관계 ICM’에 속하기도 한다.

입술을 깨무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행동이지만 초조하거나 두려움을 느낄 때 입술을 깨물기도 한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입술을 깨무는 것으로 ‘두려움’을 환유화한다. 예를 들면 아래 (7)과 같다.

(7) 아빠가 날 죽이려는구나 아이의 가슴이 내려앉는다. 겁이 나 입술을 깨



문다. 『제45회 2000 현대문학상 수상 소설집』

(7)에서 화자는 아버지가 나에게 하는 위협적인 행동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서 입술을 깨문다. 따라서 입술을 깨무는 행위를 통하여 내면의 두려운 심리 상태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의식적인 행위를 통하여 표현되는 감정’과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사이에 서로 인과 관계가 형성되므로 [입술을 깨무는 행위로 두려움을 대신함] 역시 [결과가 원인을 대신함]에서 파생된 하위개념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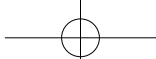
### 3.2. 한국어 ‘두려움’의 은유와 환유의 상호작용적 양상

은유와 환유가 상호작용하여 감정을 개념화하는 경우도 있다. 이 절에서는 추상적인 감정인 ‘두려움’을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환유나 은유로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감정 표현을 은환유의 개념을 이용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 3.2.1. [두려움은 딱딱해지는 실체]

인간이 두려움을 느낄 때 신체에는 일종의 특수한 뉴런 회로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뉴런 회로는 인체가 놀랄 때 뇌가 인체에 경직 현상을 일으키도록 자극하고, 이러한 신체상의 경직된 반응이 다시 대뇌에 투영되어 뇌가 인체의 근육을 제어하게 한다. 이렇게 경직된 현상은 입으로도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어는 “딱딱한 상태”를 통해 ‘두려움’을 개념화한다. 이를 예로 나타내면 다음 (8)과 같다.

(8) 가. 내수사 별좌 김공량과 상궁들은 인제는 자기네들을 밧줄로 꿩꿩 묶으려나 보다 하고 생각하니 혀가 타고 **입이 굳었다**. 몸은 사시나무 떨리듯 해서 한전(寒戰)까지 나기 시작한다. 『임진왜란』



나. 끔찍한 두려움에 **입은 얼어붙고** 귀는 꼭 막혀 무슨 숙제를 내 주었는지도 파악할 수가 없었다. 『9시 뉴스를 기다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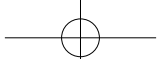
(8)에서 인간은 두려움을 느낄 때 몸이 ‘경직됨’이라는 생리적 반응이 일어난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두려움과 몸의 경직과의 인과 관계(causation)에 대한 ICM을 갖게 된다.<sup>18</sup> 이러한 ‘인과 관계’ ICM 내에서 환유적 개념 [결과로 원인을 대신함] 패턴의 [입의 경직으로 두려움을 대신함]이 생성된다. 이와 함께 ‘생리적 경직’은 ‘물체가 (추운 환경에서) 딱딱해진다’는 특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즉 두려움 때문에 입이 생리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물체가 추운 환경에서 딱딱해져 얼어붙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이 전환 과정을 통해 은유적 개념 [두려움은 딱딱해지는 실체가 생겨난다. ‘입이 굳다’는 ‘두려움’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환유를 통하여 설명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 공포를 느낄 때 실제로 추운 환경에서 경직되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입이 얼어붙다’의 표현을 쓰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은유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생리적 반응인 ‘경직됨’에서 출발하여 물체가 얼어붙어서 딱딱해지는 특성을 통해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한국어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다.

### 3.2.2. [두려움은 닫힌 용기(容器)]

인간은 두려울 때 ‘말을 못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한국어에서는 말을 못하는 경우를 ‘입이 떨어지지 않음’으로 표현한다.<sup>19</sup> 따라서 한국어는 ‘말을 할

18 두려움은 원인(cause)이며, 경직됨은 결과(effect)이다.

19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떨어지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다’의 뜻이다. 사실상 ‘떨어지다’와 ‘입’을 결합해 보면 ‘입이 떨어지다’는 ‘입이 열리고 말이 입 밖으로 나오다’의 의미이다. 그러면 ‘입이 떨어지지 않다’의 표현은 입을 ‘말을 담는 그릇’으로 볼 수 있으며, 그릇 뚜껑이 닫혀 있어 내용물인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즉, [입은 닫혀 있는 그릇이다], [입은 말을 담는 그릇이다] 등의 은유에 의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수가 없다'의 증상을 통해 '두려움'을 개념화한다. 예를 들면 아래 (9)와 같다.

(9) 두려움에 질려 입이 떨어지지를 않았다. 『어느 화가의 승천』

한국어에서는 '말을 못 한다'라는 생리적 증상을 통해 '두려움'을 환유화한다. 이때 (9)는 '입이 닫혀서 말을 못 하는 상태'인데, 이를 '떨어지지 않다'를 통해 표현하였다. 이는 '두려움'을 개념화하는 한국어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다. 즉, [어떤 감정의 생리적 증상이나 반응으로 그 감정을 대신함]에서 비롯된 환유 관계를 기초로 [두려움은 닫힌 용기(容器)]라는 은유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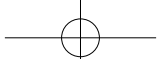
#### 4. 중국어 '두려움[懼]'의 개념화 양상

이 장에서는 '嘴/口(입)'를 중심으로 중국어 '두려움[懼]'의 개념화 양상을 연구하고자 한다.<sup>20</sup>

##### 4.1. 중국어 '두려움[懼]'의 환유적 양상

이 절에서도 앞 절과 같이 '감정'과 '생리 증상이나 반응' 사이의 인과 관계, 즉 '생리적 환유'를 통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심리 상태를 외부의 생리 반응으로 대신함]과 [심리 상태를 동작으로 대신함]의 두 가지로 구별하고자 한다.

20 『現代漢語詞典(第7版)』에서 '懼'는 '恐懼, 害怕' 등의 의미이다. 표준 중국어에서는 '懼'보다는 이음절인 '恐懼, 害怕' 등을 더욱 자주 사용하며, 중국어에서는 인체에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을 통해 '두려움'을 표현할 때 흔히 '嚇得+人體詞'의 구조로 표현한다. 따라서 아래 예문에서 제시하는 중국어 예문에서는 '嚇得+人體詞'의 구조가 자주 등장한다.



#### 4.1.1. [외부의 생리 반응으로 심리 상태를 대신함]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입과 입술 부위가 보여주는 조건반사 같은 본능적인 반응을 통하여 심리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

##### 4.1.1.1. [用張開嘴代替恐懼(입을 여는 것으로 두려움을 대신함)]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져 두려움을 느낄 때 인간은 입을 본능적으로 벌리는데, 이때 두려움이 클수록 입도 더 크게 벌리게 된다. 중국어에서는 입을 벌리는 것을 통하여 ‘두려움’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 (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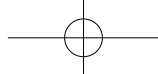
(10) 가. 那個光身子女人一回頭，看見石塊後的我們，嚇得臉都扭曲了，張著嘴，先逃了好幾十步，才狂叫出來。『讀者』  
(그 벌거벗은 여인이 고개를 돌리자 돌무지 뒤에 있는 우리를 보고 놀라서 얼굴까지 일그러지고 입을 벌린 채 먼저 수십 걸음 도망치고 나서야 마구 소리쳤다.)

나. 母親聽著暴雨的聲音，嚇得一直大張著嘴。『額爾古納河右岸』  
(어머니는 폭우 소리를 들으시고 놀라서 계속 입을 크게 벌린 채 계셨다.)

다. 周正被嚇得目瞪口呆地說不出話來。『作家文摘』  
(주정은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리고는 말을 하지 못했다.)

라. 牛奶奶起初看見丈夫從西安帶回來二百兩雪花紋銀，心中十分歡喜，如今聽他這麼一說，嚇得魂不附體，渾身打顫，臉色灰白，大張著口說不出來。『李自成1』

(우 할머니는 처음에 남편이 시안에서 이백 냥을 가져오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는데, 지금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혼비백산하여 온몸



이 떨리고 얼굴색이 창백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말을 잊지 못하였  
다.)

마. 他無意識地把門一拉, 猛然看見馬英站在後邊, 頓時嚇得張口結  
舌, 說不出話來。『平原槍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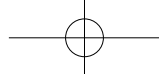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그는 무의식적으로 문을 당기자 갑자기 마영이 뒤에서 있는 것을 보고는 놀라서 입을 벌리고 말을 하지 못했다.)

(10)은 ‘張著嘴(입을 벌리다)’의 생리적인 증상을 통하여 ‘두려움’의 심리 상태를 표현한다. ‘본능적인 반응을 통하여 표현되는 감정’과 ‘생리적 증상’ 사이에 인과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즉, ‘본능적인 반응과 관계되는 감정’은 ‘원인’이고 ‘생리적 증상’은 ‘결과’가 된다. 이때 생리적 환유를 통하여 추상적인 감정이 실제로 개념화된다. 중국어에서는 ‘두려움’을 환유화할 때 (10가)의 ‘張著嘴(입을 벌리다)’, (10나)의 ‘大張著嘴(입을 크게 벌리다)’ 등으로 표현하는데, 이때 두려움이 커질수록 입도 더 크게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張著嘴(입을 벌리다)’는 다른 기관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증상이나 반응과 결합해 ‘두려움’을 표현할 수도 있다. (10다)은 ‘張著嘴(입을 벌리다)’와 ‘瞪大眼睛(눈을 크게 뜨다)’의 결합, (10라-마)은 ‘大張著嘴(입을 크게 벌리다)’와 ‘說不出話(말을 하지 못하다)’의 결합으로 ‘두려움’을 개념화한다. 이상으로 [결과로 원인을 대신함]에서 파생된 하위 구조인 [用張開嘴代替恐懼(두려움을 입을 여는 것으로 대신함)]을 살펴보았다.

#### 4.1.1.2. [用閉嘴代替恐懼(입을 다무는 것으로 두려움을 대신함)]

인간은 두려움을 느낄 때 입을 다물기도 하는데, 중국어에서는 두려움을 표현할 때 ‘입을 다무는 증상’으로 ‘두려움’을 환유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아래 (11)과 같다.



(11) 가. 影凝還想爲那可憐的姑娘辯護幾句，卻遭宋老夫人厲眼一瞪，只好乖乖閉上嘴巴，不敢多言。『浪人的情歌』

(영웅은 그 불쌍한 아가씨를 위해 몇 마디 변명하려다가 송씨 부인의 눈총 때문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고 감히 말을 하지 못했다.)

나. 見小姐輕蹙起眉頭，她只好閉上嘴。『赤龍瑾』

(아가씨가 눈살을 살짝 찌푸리는 것을 보고 그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11)에서 ‘閉上嘴(입을 다물다)’ 등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 조건반사와 같은 생리적 증상이나 반응을 통하여 ‘두려움’의 심리 상태를 표현한다. 이때 ‘생리 증상을 통하여 표현하는 감정’과 ‘생리적 증상’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用閉嘴代替恐懼(입을 다무는 것으로 두려움을 대신함)]은 [결과로 원인을 대신함]에서 파생된 하위개념 구조이다.

#### 4.1.1.3. [用嘴或嘴唇顫抖代替恐懼(입이나 입술을 떠는 것으로 두려움을 대신함)]

인간의 심리 상태가 불안할 때는 입이나 입술을 떠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어에서는 ‘입이나 입술을 떠는 증상’을 통하여 ‘두려움’을 환유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아래 (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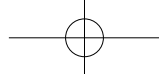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12) 가. 王錄嚇得嘴都哆嗦了。『額爾古納河右岸』

(왕록은 놀라서 입을 바들바들 떨었다.)

나. 一位領導嚇得嘴唇直哆嗦，連說了兩遍也沒把意思說清楚。

『作家文摘』

(지도자 한 명이 놀라서 입술을 계속 떨며 두 번을 말해도 분명하게 말하지 못했다.)



다. 兩個媳婦嚇得臉色慘白，縮在牆角裏顫抖。二媳婦嘴唇顫動著說：“叔叔大爺們！他們男人們辦的事，我不知道……男人不喜愛，不和我說……”『呂梁英雄傳』

(두 며느리는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담벼락에 몸을 떨었다. 둘째 며느리는 입술을 떨며 “작은할아버지들! 남자들이 하는 일, 나는 모릅니다… 남자들이라 꺼려서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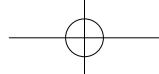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중국어에서 ‘두려움’을 개념화할 때는 입이나 입술을 떠는 증상을 통하여 공포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기도 한다. (12가)의 ‘嘴哆嗦(입을 바들바들 떨다)’, (12나)의 ‘嘴唇直哆嗦(입술을 계속 떨다)’, (12다)의 ‘嘴唇顫動(입술을 떨다)’ 등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 생리적 증상이나 반응을 통하여 ‘두려움’의 심리 상태를 개념화한다. ‘두려움’이라는 추상적인 감정은 원인이고 ‘두려움’과 관련된 증상은 결과이다. 그러므로 [用嘴/嘴唇顫抖代替恐懼(입/입술을 떠는 것으로 두려움을 대신함)] 역시 [결과가 원인을 대신함]에서 파생된 하위개념 구조 중 하나이다.

#### 4.1.1.4. [嘴裏幹代替恐懼(입안이 마르는 것으로 두려움을 대신함)]

인간은 두려움을 느낄 때 침 분비가 줄고 입이 마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중국어에서도 ‘두려움’을 표현할 때 ‘입술이나 입안이 마르는 생리적 증상을’ 통하여 ‘두려움’을 환유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다음 (13)과 같다.

(13) 他看著我轉身就走了，在遠處朝我揮手，好像他能看出我的心思、我的感情一樣，這更使我感到害怕。我自己也不知道為什麼會是這樣，手腳僵直，口幹舌燥……『死光』

(나를 보고 돌아선 그는 멀리서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마치 그가 내



마음,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 같아 나를 더욱 두렵게 했다. 왜 그런  
지 나도 몰라서 손발이 뻣뻣하고 입안과 혀가 마르고...)

(13)에서는 속마음을 들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입안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중국어에서는 ‘口幹(입안이 바싹 마르다)’와 ‘舌頭乾燥(혀가 마르다)’를 결합해 ‘두려움’을 표현한다. 따라서 (13)의 ‘口幹舌燥(입안과 혀가 마르다)’는 생리적인 증상을 통하여 ‘두려움’의 심리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이때 ‘생리적 증상을 통하여 표현하는 감정’과 ‘생리적 증상’ 사이에는 인과 관계를 이룬다. 그러므로 [用嘴裏幹代替恐懼(입안이 마르는 것으로 두려움을 대신함)]은 역시 [결과로 원인을 대신함]에서 파생된 하위 개념 구조이다.

#### 4.1.1.5. [用嘴唇的色彩反應代替恐懼(입술에 나타나는 색채 반응으로 두려움을 대신함)]

신체의 색채 반응은 감정의 전형적인 징표라 할 수 있다. 중국어에서도 입술의 색채 반응을 통하여 ‘두려움’을 표현하는데, 예는 다음 (1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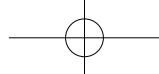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14) 가. 老百姓都躲藏著。躲不及的嚇得渾身發抖，嘴唇發白。『林海雪原』

(백성들은 모두 숨어 있다. 미처 숨지 못한 사람들은 온몸이 떨리고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나. 何胡氏沒想到他這般粗魯，嚇得倒退了幾步，嘴唇都白了。『三家巷』

(하호 씨는 그가 이렇게 우악스러울 줄 몰랐고, 입술이 하얗게 질려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다. 楊志看著半截身子的牛二朝後“撲通”跌倒，嚇得嘴皮子也青了，  
哆嗦著手提著刀子站在地。『無厘頭水滸故事：完全強盜手冊』



(양지는 몸이 반토막 난 소이를 보고는 쿵 하고 넘어져, 놀라서 **입술도 새파랗게 질려** 부들부들 떨며 칼을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14)에서 ‘입술’에 나타나는 ‘두려움’의 색채 반응은 ‘하얀색’과 ‘파란색’이다. (14가-나)에서는 ‘嘴唇發白(입술이 하얗게 질린다)’, ‘嘴唇都白了(입술이 하얗게 질린다)’로, (14다)의 ‘嘴唇子青了(입술이 새파랗게 질리다)’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두려움’을 느낄 때 ‘입술’의 색채가 하얗거나 푸르게 바뀔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중국어에서는 [用嘴唇的色彩反應代替恐懼(입술에 나타나는 색채 반응으로 두려움을 대신함)]이라는 생리적 증상을 통하여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개념화한다. [用嘴唇的色彩反應代替恐懼(입술에 나타나는 색채 반응으로 두려움을 대신함)]은 역시 [결과로 원인을 지칭함]의 하위개념 구조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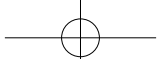
#### 4.1.1.6. [用咧嘴代替恐懼(입을 일그러뜨리는 것으로 두려움을 대신함)]

인간은 불편한 표정을 지어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중국어에 서는 입의 모양, 즉 ‘咧著嘴(옆으로 찢어지듯이 입을 벌리다)’라는 표현으로 ‘두려움’을 구체화한다. 예를 들면 다음 (15)와 같다.

(15) 可是她還笑：“你們嚇得**齜牙咧嘴**啦！別害怕，我不會立刻就沉下去的！”『黑鐵時代』

(그러나 그녀는 “너희들은 겁에 질려 **이를 드러내고 입을 일그러뜨리고** 있구나. 겁먹지 마, 금방 가라앉지는 않을 거야!”라고 말했다.)

인간은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낼 때 얼굴을 찡그리며 입이 옆으로 벌어져 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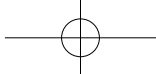
아가 드러나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어에서는 ‘두려움’이라는 추상적인 감정을 구체적으로 개념화할 때 ‘齜牙(이를 드러내다)’와 ‘咧嘴(입을 일그러뜨리다)’를 결합하기도 한다. 이는 중국어의 특별한 표현 방식인데, (15)에서는 ‘齜牙咧嘴(이를 드러내고 입을 일그러뜨리는 모양)’을 통해 ‘두려움’의 심리 상태를 표현한다. ‘두려움’과 구체적인 표현인 ‘齜牙咧嘴(이를 드러내고 입을 일그러뜨리다)’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用咧嘴代替恐懼(입을 일그러뜨리는 모양으로 두려움을 대신함)]은 [결과로 원인을 대신함]에서 과생된 하위개념 구조로 볼 수 있다.

#### 4.1.2. [동작으로 심리 상태를 대신함]

환유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조건반사처럼 생리적 반응을 통하여 심리를 표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체의 능동적, 의식적 행위를 통하여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두 번째 방식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환유화되는 것을 살피고자 한다.

인간은 초조하거나 두려움을 느낄 때 입술을 깨물게 된다. 중국어에서는 ‘입술을 깨물다’의 행위를 통해 ‘두려움’을 개념화하기도 한다.

- (16) 가. 貝爾娜則嚇得白了臉，她咬著嘴唇，打著哆嗦，好像一只被狼群包圍的小鹿，看上去是那樣的孤獨無助。『額爾古納河右岸』  
 (베르나는 놀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깨물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녀는 늑대떼에 둘러싸인 사슴처럼 외로워 보였다.)
- 나. 膽小的觀眾既想看，又不敢看，就用雙手掩著臉從手指縫裏看。  
 有的緊張得咬著指，有的手托下巴咬著嘴唇。『人民日報』  
 (겁이 많은 관객들은 보고는 싶었지만 감히 볼 엄두를 내지 못하여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손가락 사이로 보았다. 어떤 사람은 긴장해서 손가락을 깨물었고, 어떤 사람은 턱을 괴고 입술을 깨물었다.)



(16)에서 인간은 두려움을 느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입술을 깨물기도 한다. (16)은 ‘입술을 깨무는 행위’를 통해 내면의 두려운 심리를 표현한다. ‘생리 증상을 통하여 표현되는 감정’과 ‘생리 증상’ 사이에 서로 인과 관계가 형성되므로 [用咬住嘴唇的行爲代替恐懼(입술을 깨무는 행위로 두려움을 대신함)] 역시 [결과가 원인을 대신함]에서 파생된 하위개념 구조이다.

#### 4.2. 중국어 ‘두려움[懼]’의 은유와 환유의 상호작용적 양상

중국어에서 ‘두려움’에 관한 표현 중에는 환유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 이는 2차적 연상을 통하여 ‘두려움’에 대한 완전한 의미를 밝힐 수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은 Goossens(1990)이 제시한 은환유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어 표현에서는 ‘입을 펜치처럼 다물다’의 표현이 있는데, 이를 통해 ‘두려움’이라는 추상적인 감정을 개념화한다. 예를 들면 다음 (17)과 같다.

(17) 가. 當人民被取消發言權的時候，狀如阿鬥，但**鎚口結舌**。『讀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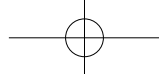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사람들은 발언권이 취소될 때 아두(阿斗)<sup>21</sup>처럼 행동하지만, 위세에 눌려 **입을 펜치처럼 다물고 혀가 굳어져** 말문이 막혔다.)

나. 一旦遇到利害，搶攘無措，**鎚口擣舌**而莫敢言。『漢辭網』

(손해를 보고 도둑질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입을 펜치처럼 다물고 혀가 말려**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다.)

(17)에서 인간은 두려움을 느낄 때, 입을 펜치처럼 굳게 다무는 것으로 ‘두려움’을 표현한다. 그것은 인간이 두려울 때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입을 굳게 다무는 것은 환유적 의미로 해석되어 ‘두려움’을 나타내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누군가가 글자 그대로 입을 ‘펜치처럼 굳게’ 다무는 모

21 ‘아두(阿鬥)’는 사람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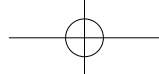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습을 직접 보거나 행동하지 않고도 ‘두려움’이라는 추상적인 감정을 이야기할 때는 은유를 메커니즘으로 ‘두려움’을 개념화할 수 있다. 즉, (17가)의 ‘鉗口結舌(입을 펜치처럼 다물고 혀가 굳어져 말문이 막히다)’, (17나)의 ‘鉗口擣舌(입을 펜치처럼 다물고 혀가 말려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다)’ 등의 양상은 모두 은유를 메커니즘으로 ‘두려움’을 개념화한 것이다. 즉, [用閉嘴代替恐懼(입을 다문 것으로 두려움을 대신함)]에서 비롯된 환유 관계를 바탕으로 [恐懼是緊緊咬合的鉗子(두려움은 꼭 맞물린 펜치)]이라는 은유가 형성된다.

## 5. 한·중 ‘두려움’의 개념화 양상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상으로 인체 부위인 ‘입’과 ‘입술’을 대상으로 삼아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생리적 환유, 은유와 환유의 상호작용을 통한 ‘두려움’의 개념화 양상을 살펴 보았다.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두려움’의 개념화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환유적 양상은 주로 타인이 관찰 가능한 조건반사와 같은 외부 상태, 즉, 타인이 관찰 가능한 외부의 ‘생리 증상이나 반응’으로 내면의 심리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결과로 원인을 대신함]의 하위구조인 [외부의 생리적 반응으로 심리 상태를 대신함]에 속한다. 또한, 주체의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동작에 의하여 심리 상태가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결과로 원인을 대신함]의 하위구조인 [동작으로 심리 상태를 지칭함]으로 볼 수 있다.

[외부의 생리적 반응으로 심리적 상태를 대신함]에서 파생된 다양한 하위구조 중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에 모두 존재하는 것은 [입을 여는 것으로 두려움을 대신함], [입을 다무는 것으로 두려움을 대신함], [입이나 입술을 떠는 것으로 두려움을 대신함], [입안이 마르는 것으로 두려움을 대신함], [입술에 나타나는 색채 반응으로 두려움을 대신함] 등이 있다. 이때 [입술에 나타나는 색채 반응으로 두려움을 대신함]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환유적 양상에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어에서 [입술에 나타나는 색채 반응으로 두려움을 대신함]과 관련된 환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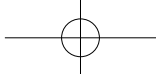


양상은 ‘입술’이 ‘푸르게’ 또는 ‘검게’ 변하는 색채 반응을 통하여 ‘두려움’을 표현한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하얗게’와 ‘푸르게’ 변하는 색채 반응을 통하여 ‘두려움’을 표현한다. 그리고 중국어에만 적용되는 구조로는 [입을 일그러뜨리는 것으로 두려움을 대신함(用咧嘴代替恐懼)]이다. [동작으로 심리 상태를 대신함]에서 파생된 하위구조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위구조로는 [입술을 깨무는 것으로 두려움을 대신함]이 있다.

본고는 감정 표현의 합성성의 정도에 근거하여 환유적인 경향인지, 은유적인 경향인지를 판단하였다. 어떤 감정은 인간의 생리적 증상이나 반응만으로도 판단이 가능한 반면에 어떤 감정은 생리적 증상이나 반응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는 2차적 연상을 해야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은 환유’를 통해 분석해야 하는 경우이다. 한국어와 중국어에도 ‘두려움’과 관련된 감정 표현을 은유와 환유가 상호 작용해야 이해할 수 있는 개념 구조가 있는데, 이러한 개념 구조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어에 적용되는 구조로는 [두려움은 딱딱해지는 실체], [두려움은 닫힌 용기(容器)]가 있고 중국어에 적용되는 구조로는 [恐懼是緊緊咬合的鉗子(두려움은 꼭 맞물린 펜치)]가 있다.

본고는 인간의 신체 기관인 ‘입’과 이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 ‘입술’을 대상으로 한·중 양국의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개념적 양상을 대조하여 표현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먼저 표현 방식에서 두 언어에 동일한 요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이 공통된 인지 체계와 기능을 공유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비슷한 문화권에서 이루어지는 언어는 표현상의 유사성을 띤다. 개념화 과정의 차이는 대부분 문화적 차이 때문인데, 문화 간의 변이에 대한 잠재적 근원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동환·최영호 역 2009: 267).

첫째, 양국의 언어에서 환유적 양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근원은 환유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한 언어와 문화에는 다른 언어와 문화에 관습적 언어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환유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用咧嘴代替恐懼(입을 일그러뜨리는 것으로 두려움을 지칭함)]은 중국어에만 나타나는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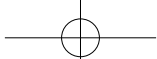
둘째, 환유의 정교화가 다르다. 즉, 언어에서 지각되고 인식되는 생리적 반응은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개념 환유도 그것의 정교화 및 환유에 주어진 중요성이 문화마다 다르다. 예를 들면, 한국어에서 [입술에 나타나는 색채 반응으로 두려움을 대신함]과 관련된 환유 양상은 ‘입술’의 ‘푸르다, 검다’ 등의 색채 반응을 통하여 ‘두려움’을 표현하는데 중국어에서는 ‘하얗다, 푸르다’ 등의 색채 반응으로 ‘두려움’을 표현한다.

셋째, 개념적 은유의 범위가 다르다. 즉, 양국의 언어에서 환유로부터의 은유의 양상에 차이가 존재하는 근원은 문화에 따라 개념적 은유의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국어에서는 [두려움은 닫힌 용기(容器)]가 있고 중국어에서는 [恐懼是緊緊咬合的鉗子(두려움은 꼭 맞물린 펜치)]가 있다.

## 6.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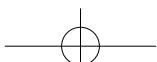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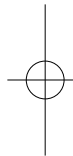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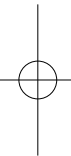
‘입’은 가장 많은 기능을 가진 신체 기관으로 인간은 ‘입’의 다양한 동태를 통해 내면의 감정 상태를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인체 부위인 ‘입’과 ‘입술’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인지언어학의 ‘생리적 환유’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기본 감정인 ‘두려움’이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개념화되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혔다. 본고는 ‘생리적 환유’, ‘은유와 환유의 상호작용’을 메커니즘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개념화 양상을 대조하였다. 또한, 감정 표현의 ‘합성성의 정도’의 개념을 통해 언어가 감정을 개념화할 때 ‘생리적 환유’를 강조하는지 또는 ‘은유와 환유 상호작용’을 강조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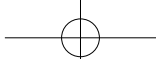
본고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두려움’의 개념화 양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구함으로써 한국어와 중국어의 표현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밝히고자 했으며, 문화 간의 변이에 대한 잠재적인 근원을 분석하였다. 첫째, 한 언어와 문화에는 다른 언어와 문화에 관습적 언어 형태로 존재하지 않은 환유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언어에서 지각되고 인식되는 생리적 반응은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



만 동일한 개념의 환유도 그것의 정교화 및 환유에 주어진 중요성이 문화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셋째, 문화에 따라 개념적 은유의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연구 범위가 ‘입과 입술’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 개념화에 대한 문화적 변이의 잠재적 근원의 일부분을 찾아내었을 뿐이다. 추후에 연구 범위를 넓혀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두려움’에 대한 표현을 전방위적으로 대조한다면 두 언어의 개념화 방식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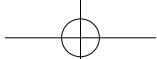
## [참고문헌]

### ■ 단행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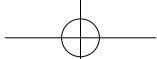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7308면.
- 이훈구·이수정·이은정·박수애(2005), 『정서심리학』, 법문사, 1-345면.
- 임지룡(2006), 『말하는 몸: 감정 표현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1-515면.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2016), 『現代漢語詞典(第7版)』, 商務印書館, 1-1800면.
- Ekman, P. & Friesen, W. V.(2003), *Unmasking the face: A guide to recognizing emotions from facial expressions*, Cambridge: Malor Books, 1-212면.
- Goossens, L. et al.(1995), *By Word of Mouth: Metaphor, Metonymy and Linguistic Action in a Cognitive Perspective*, Amsterdam: John Benjamins, 1-252면.
- Kövecses, Z.(2000), *Metaphor and Emotion: Language, Culture, and Body in Human Feeling*, Cambridge University, 1-240면. [김동환·최영호 역(2009), 『은유와 감정: 언어, 문화, 몸의 통섭』, 동문선, 1-332면.]
- Kövecses, Z.(2002),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336면. [이정화 외 역(2003), 『은유: 실용입문서』, 한국문화사, 1-482면.]
- Lakoff, G. & Johnson, M.(1980/2003), *Metaphors we live b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276면. [노양진·나익주 역(2006), 『삶으로서의 은유(수정판)』, 박이정, 1-429면.]
- Lakoff, G.(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614면. [이기우 역(1995), 『인지 의미론: 언어에서 본 인간의 마음』, 한국문화사, 1-763면.]
- Ungerer, F. & Schmid, H.(1996), *An introduction to cognitive Linguistics*, London: Longman, 1-306면. [임지룡·김동환 역(1998), 『인지언어학 개론』, 태학사, 1-456면.]
- つじ 幸夫(2002), 『認知言語學キ-ワード事典』, 研究社, 1-314면. [임지룡 외 역(2004), 『인지언어학 키워드 사전』, 한국문화사, 1-350면.]

## ■ 논문 및 기타 자료

- 강병창(2012), 「한국어와 독일어의 ‘화’의 감정 은유에 대한 재고찰- 코퍼스 기반 인지언어학적 분석」, 『독일언어문학』 56, 독일언어문학회, 25-45면.
- 심지연(2009가), 「국어 관용어의 인지의미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296면.
- 심지연(2009나), 「국어 관용어 의미에 나타나는 은환유성에 대한 연구」, 『한국어의 미학』 28, 한국어의미학회, 127-145면.
- 오상석(2014), 「한국어와 영어의 ‘두려움’ 개념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연구」, 『한국어 의미학』 44, 한국어의미학회, 141-170면.
- 요령운(2021), 「한국어와 중국어의 ‘두려움’에 대한 개념화 양상 대조 연구- ‘눈’을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28-1, 담화·인지언어학회, 159-186면.
- 이범열(2021), 「현대중국어 감정 은유와 환유의 사용과 의사소통 효과: 안색 표현을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97, 언어과학회, 21-44면.
- 이선희(2010), 「한중 ‘슬픔’과 ‘두려움’ 은유 표현 인지적 연구」, 『중국어문학』 56, 중국어문학회, 241-274면.
- 이정희(2011), 「공포를 나타내는 중국어 관용표현-‘혁득(吓得)+신체어’구조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56, 중국학연구회, 177-202면.
- 이정희(2012), 「중한 감정을 나타내는 신체어구조 개념화 연구- 기쁨·분노·슬픔·공포감정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202면.
- 임지룡(1999), 「감정의 생리적 반응에 대한 언어화 양상」, 『담화와 인지』 6-2, 담화·인지언어학회, 89-117면.
- 임지룡(2000), 「‘화’의 개념화 양상」, 『언어』 25-4, 한국언어학회, 693-721면.
- 임지룡(2001가), 「‘두려움’의 개념화 양상」, 『한글』 252, 한글학회, 109-143면.
- 임지룡(2001나), 「‘기쁨’과 ‘슬픔’의 개념화 양상」, 『국어학』 37, 국어학회, 219-249면.
- 임지룡(2001다), 「‘미움’의 개념화 양상」, 『어문학』 73, 한국어문화회, 173-201면.



- 임지룡(2001라), 「‘긴장’의 개념화 양상」, 『담화와 인지』 8-2, 담화·인지언어학회, 205-227면.
- 임지룡(2005가), 「‘사랑’의 개념화 양상」, 『어문학』 87, 한국어문화회, 201-233면.
- 임지룡(2005나), 「‘부끄러움’의 개념화 양상」, 『어문학』 89, 한국어문화회, 27-56면.
- 임지룡(2015), 「‘두려움’의 문화적 변이 양상」, 『언어과학연구』 74, 언어과학회, 217-252면.
- 최지훈(2007), 「국어 관용구의 은유·환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247면.
- 陳家旭(2008), 「英漢語“恐懼”情感隱喻認知對比」, 『四川外語學院學報』 24-1, 四川外語學院, 66-68면.
- 董偉娟·毛靜林(2008), 「英漢“恐懼”隱喻的對比分析」, 『台州學院學報』 2008-4, 台州學院, 41-44면.
- 李敬(2011), 「漢語情感“喜怒哀懼”的轉喻分析」, 『商業文化』 2011-6, 中國商業文化研究會, 276-277면.
- 李秀芝(2008), 「英漢習語對比分析-以“恐懼”概念隱喻爲視角」, 『民族教育研究』 19-6, 中央民族大學, 83-86면.
- 張林影(2012), 「英漢“恐懼”概念的隱喻對比分析」, 『牡丹江師範學院學報』 2012-5, 牡丹江師範學院, 83-86면.
- 趙學德(2013), 「英漢情感生理轉喻的對比研究」, 『中國校外教育』 上旬刊, 復旦大學, 114-115, 128면.
- 鍾曲莉(2008), 「英漢“恐懼”隱喻認知的共性與個性分析」, 『長沙鐵道學院學報』 2008-1, 中南大學, 197-198면.
- Goossens, L.(1990), Metaphonymy: The interaction of metaphor and metonymy in expressions for linguistic action, *Cognitive Linguistics* 1-3, De Gruyter Mouton, 323-340면.
- Radden, G. & Kövecses, Z.(1999), Towards a Theory of Metonymy, In *Metonymy in Language and Thought*, edited by Radden, G. & Panther, K., Amsterdam:



John Benjamins, 17-59면.

■ 기본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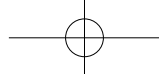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물결21 코퍼스, <http://corpus.korea.ac.kr/>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 말뭉치, <https://ithub.korean.go.kr/user/main.do>(현재  
폐쇄됨)

北京大學中國語言學研究中心(CCL)말뭉치,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http://ccl.pku.edu.cn:8080/ccl_corpus/)

北京語言大學語料庫中心(BCC)말뭉치, <http://bcc.blcu.edu.cn/>

접수일: 2021.11.14. 총평일: 2021.12.28. 게재확정: 2021.1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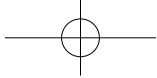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Conceptualization of  
“Fear” in Korean and Chinese II-Centered on  
“Mouth” and “Lips”**

Yao, Lingyun · Kim, Seongju(Dongguk University)

In order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of Korean and Chinese in the ways of expression, this study takes the “mouth” and “lips” of human as its object of study to explore the universality and variation of the conceptualization of basic emotion “fear” in Korean and Chinese from the perspective of “physiological metonymy” in Cognitive Linguistics. Similar to Yao Lingyun (2021), the paper compar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conceptualizati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based on mechanisms of “physiological metonymy” and “interaction of metaphor and metonym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based on the mechanism of “physiological metonymy”, both Korean and Chinese can replace “fear” with physiological responses or symptoms including “open the mouth”, “close the mouth”, “lips quiver”, “dry in the mouth”, “the color of lips change”, and “bite lips”. However, “fear” is conceptualized by the “cyan” and “black” of lips in Korean but by “cyan” and “white” of lips in Chinese. In Chinese, “open the mouth wide” is a unique way of expressing fear. Secondly, based on the mechanism of “interaction of metaphor and metonymy”, “fear” is conceptualized by “stiffness” and “closed container” in Korean but by “pliers” in Chinese.



**Key words:** cognitive linguistics, physiological metonymy, emotion, conceptualization, metaphonymy, idealized cognitive model, interaction of metaphor and metonymy

